

# 도내 5개 시군, 도시재생 공모 선정

### 군산 중앙동·남원 운봉읍 등... 전북도, 국비 461억원 확보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지속가능 도시재생 기반 마련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상반기 도시재생 공모에서 5개 소가 선정돼 국비 461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특화·인정사업·노후주거지정비지원·우리동네살리기 등 유형별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쇠퇴 지역에 생활SOC를 공급하고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주민 역량을 강화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연초부터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현장 조사와 주민 설문조사, 사업계획 수립을

진행했다. 국토부 평가 단계에서는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등 지역특화 유형에 군산·남원, 인정사업에 장수, 노후주거지정비지원에 김제, 우리동네살리기에 임실이 선정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업을 확보했다.

군산시 중앙동은 '뉴 스타트업 챌린지 군산 로컬타운 조성'을 목표로 총사업비 250억 원(국비 150억)을 들여 지역 공실 점포를 취입·창업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관련 교육·지원 시설과 함께 1990~2000년대 복고풍 테마 거리·문화 광장을 조성한다.

남원시 운봉읍은 미식과 휴양, 별빛이 머무르는 힐링거점 운봉'을 주제로 총사업비 250억원(국비 150억)을 투입해 운봉 흑돼지와 고품질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 시설, 지리산 관광객을 위한 체류형 치유 시설을 조성하고 주민 정주 환경도 개선한다.

장수군 장계면은 '함께 나누고 어울리는 공간, 장계 어울림센터' 조성에 총사업비 35억원(국비 21억)을 투입해 마을 공동 식당·작업장, 노인 교실, 실내건강교실 등을 갖춘 지상 2층 규모의 주민 맞춤형 복합공간을 만든다.

김제시 신평동은 노후주거지정비지원 유형으로 총사업비 150억 원(국비 90억)을 들여 자율주택정비와 신규 도로 개설, 노의 주차장 조성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세대통합 커뮤니티 시설 등 편의시설도 공급해 민간 신

규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임실군 관촌면은 '다시 채우고 함께 나누는 활력충진소, 관촌'을 주제로 총사업비 83억원(국비 50억)을 투입해 기존 관촌면사무소를 리모델링, 주민 문화·복지 공간과 주차장·태양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후주택 집수리와 안심골목길 조성도 병행한다.

도는 인구 감소와 도시 쇠퇴 등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군과 협력해 경쟁력 있는 재생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도내 구도심의 쇠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오전, 신탄진 맥포터널 개량현장을 찾아 수해복구 및 재해예방 실태를 점검했다.

## “침수 피해 되풀이 막아야”

### 김윤덕 국토부장관, 신탄진 맥포터널서 재해예방 실태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오전, 신탄진 맥포터널 개량현장을 찾아 수해복구 및 재해예방 실태를 점검했다.

신탄진 맥포터널 복구사업은 지난 2023년 7월 14일 경부선 신탄진-매포간 상선 운행 중인 무궁화호송열차가 선로 내 유입된 토사와 접촉해 궤도 이탈한 사고 발생 이후, 재해복구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 장관은 국가철도공단 등 현장 관계자들과 배수로 격자블록(산사태 방지) 등 재해 예방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재해예방시설사업 추진현황 등 이번 장마철 대비 수방대책을 보고 받았다.

김 장관은 현장점검을 마친 뒤 "홍수, 산사태 등 재해가 반복되는 지역은 교량·옹벽·배수시설·산사태방

지 등 예방 시설을 신속히 확충 및 개량하여 철도시설물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예측을 넘어서는 만큼,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철도·도로 등 기반 시설의 안전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고도 막중한 책무"라면서 "단순 복구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배수체계와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기대비 철저한 취약지역 관리와 함께 폭염에 대비해 휴식시설 및 음용수 확보 등 현장 작업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전북특별자치도가 수도권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전북 농촌의 정착 여건과 지원정책을 알리고 실제 전북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도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 A1센터에서 '2026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시군별 정착 여건과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지역 선택부터 주거·영농·일자리까지 실제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은 최근 귀농귀촌 통계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 귀농귀촌 통계에 따르면 전국 귀농귀촌 인구는 전년보다 1.9% 감소한 반면, 전북은 귀농 1,248명, 귀촌 1만 3,839명 등 총 2만 5,087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올해 상담홍보전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도내 13개 시군과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이 참여했다.

행사장 참조류1에서는 시군별 상담관과 전문상담관을 상시 운영해 귀농·귀촌, 농촌 일자리,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농지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참조류2 교육관에서는 귀농귀촌 준비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첫째 날에는 귀농귀촌 마인드 함양 교육과 전북 귀농귀촌 정책 설명회, 귀농창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을 운영했다. 둘째 날에는 농촌 일자리 정보를 소개하고, 선배 귀농인이 스마트팜 운영 사례와 정착 경험을 공유하며 성공적인 귀농귀촌 노하우를 전달했다.



지난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로비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박람회'가 열린 가운데, 이원택 도지사, 김희수 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생산품을 둘러보고 도민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 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 우수 생산품 전시·홍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대상 컨설팅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3일 도청 1층 로비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공공기관 구매·계약 담당자의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전시·홍보 부스를 운영해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공공기관 구매·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선구매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생산업체 간 구매 상담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판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오후에는 도청 공연장에서 한

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으로 우선구매 제도 교육을 진행해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구매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된 의무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구매실적 관리와 맞춤형 컨설팅, 전시·홍보 행사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기부에서 방문까지

### 도, 고향사랑기부 페스티벌 참가 전북사랑도민증 혜택 연계 홍보

전북특별자치도가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북사랑도민증을 연계한 홍보를 통해 수도권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북의 매력을 알리고 생활인구 확대에 나섰다.

도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고향사랑 기부 페스티벌'에 참가해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치와 전북사랑도민증의 혜택을 함께 소개했다.

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알리고, 전북 대표 답례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



는 홍보관을 운영해 수도권 관람객들의 관심을 높였다.

홍보관에서는 전북을 대표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공예품 등 다양한 답례품을 전시하고 시식·시음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기간에는 현장 참여 이벤트도 마련됐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